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김 규 환(Gyu-Hwan Kim)*

남 영 준(Young-Joon Nam)**

목 차

- | | |
|-----------------|----------------------------|
| 1. 서론 | 4.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주제영역별 분포 |
| 1.2 연구내용과 방법 | 4.2 연구배경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 |
| 2. 관련연구 | 4.3 연구자특성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 및 차이 |
| 3. 연구 설계 | 5. 결론 및 제언 |
| 3.1 연구모형과 가설 | |
| 3.2 분석내용과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발표된 학회지 논문으로부터 주제영역과 연구배경 정보(연구시기와 학회지)와 연구자특성 정보(소속 및 전공)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배경 및 연구자특성에 따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의 분포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최근 10년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영역이 출현하고 쇠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사대상 학회지마다 특징적인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자 소속기관마다 특징적인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구자 전공별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by analyzing the article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according to subjects, issue periods, journals and researchers. For the study, 374 articles from 3 academic journals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09 were analyzed. As a result, several research trends in this field were discovered.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it has been proven that the productivity of the article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increases as time goes by.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ubject fields among journals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ir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ubject fields among researchers' institutions. Fourthly,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subject fields among researchers' specialized areas.

키워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연구배경, 연구자 특성, 주제영역, 빈도분석, 대응분석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Trends,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Attribute, Subject, Cross-tabulation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emm1996@hanmail.net)(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yj@cau.ac.kr)(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09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2009. [DOI:10.4275/KSLIS.2009.43.4.2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특정 학문분야가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이론을 형성하여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까지 수행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위상과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량화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비교·분석하는 계량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료의 계량화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주제영역의 변화 등을 거시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지 논문들을 선정하여 주제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주제영역과 주제영역들의 생성 및 소멸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거나 분석된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정보들과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기록관리학은 비교적 초장기에 해당하지만 학제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써 이론과 실무의 상호보완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었고 이들 연구 성과물들을 토대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 구조와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들의 주제영역 분포와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연구시기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둘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학회지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셋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연구자 소속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넷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연구자 전공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밝힌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발간된 국내 3종의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374편의 핵심 연구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연구논문으로부터 주제영역과 연구배경 정보(연구시기와 학회지), 연구자특성 정보(소속 및 전공)를 추출하였다. 이들 연구정보들은 선정된 학회지 및 연구논문에 기재된 당시의 내용에 근거하였다.

셋째, 주제영역과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주제영역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였

고 대응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여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국내 연구자들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과 연구 활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연구와 주제영역과 다양한 연구정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이 살펴보면 김희정(2005)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지의 총 333편의 논문으로부터 선정된 핵심 저자들의 동시이용빈도에 기반한 다차원축척기법을 통하여 국내·외 기록관리학 지적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어 김희정(2006)은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 수행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의 변천과 확장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의 연구논문 145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문헌 클러스터링과 문헌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의 344개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토대로 어떤 연구대상이 핵심 연구대상

이며 핵심 연구대상은 어느 연구도메인에서 어떤 연구초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또는 시계열적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의 분포와 변화상을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제영역과 학회지 및 연구자들의 다른 연구정보와의 관련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둘째, 학회지 논문에 포함된 주제영역과 다양한 연구정보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9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 정보학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추이, 학회지별 연구자의 구성비율, 주제영역별 흐름 등을 분석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정보학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399개를 대상으로 학회지별, 간행시기별, 연구자별 주제영역의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의 분석항목은 1) 연도/간행시기/특정시점 기준 전·후반기, 2) 학회지, 3) 연구자, 4) 주제영역이며 이 중 연구자 항목은 연구자 신분, 연구자 개인, 공동연구자수, 연구자 전공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분석항목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분석항목의 빈도나 비율을 측정

〈표 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의 특성

구 분	장로사, 김유승(2009)	남태우, 이진영(2009)	비 고
조사기간	2000-2008	1987-2007	-
조사범위	1) 기록학연구(31편) 2) 한국기록관리학회지(24편) 3) 한국문헌정보학회지(12편) 4) 한국비블리아학회지(13편) 5) 정보관리학회지(19편)	1) 기록보존(129편) 2) 기록관리보존(56편) 3) 기록학연구(104편)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110편)	-
주제범위	국내 정보학 영역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
주제영역 설정방법	분석대상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 중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빈도수에 기반하여 주제영역 설정	국내외 기관 및 학자들이 제시한 주제영역 + 국내외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 + 국내 〈기록관리법〉의 4개 핵심영역을 종합하여 주제영역 설정	-
분석 내용	1) 연도별 학회지수록논문 분포 2) 연도별 연구자 신분의 분포 3) 학회지별 연구자 신분의 분포 4) 학회지별 연구논문당 공동연구자의 분포 5) 학회지별 연구자의 전공 분포 6) 주제영역별 연구논문 분포 - 연도별 주제영역 분포 - 연구자 신분별 주제영역 분포 - 학회지별 주제영역 분포 ※ 연구자신분: 교수(강사), 학생,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기타 ※ 연도: 1단위 구분	1) 주제영역별 연구논문 분포 - 〈기록관리법〉제정 전·후 주제영역 분포 - 〈기록관리법〉제정 전·후 주제영역의 독립성 검정 - 상위빈도 키워드별 분포 - 주제영역별 소속 키워드 분포 2) 간행시기별 연구논문 분포 - 간행시기와 주제영역의 독립성 검정 3) 학회지별 주제영역 분포 4) 간행시기별 연구자(개인)의 연구논문의 분포 - 연구자(개인)별 주제영역 분포 5) 공동연구자 수의 분포 - 학회지별 공동연구 수 분포 ※ 연구자(개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 ※ 간행시기: 5단위 구분	〈분석항목〉 1. 연도/간행시기 - 〈특정시점〉전후 2. 학회지 3. 연구자 - 연구자 신분 - 연구자 개인 - 공동연구자수 - 연구자 전공 4. 주제영역 - 키워드
분석 방법	1) 분포의 특성: 빈도 및 비율 측정	1) 분포의 특성: 빈도 및 비율 측정 2) 독립성 검정: 카이제곱 검정	-

하는 기술통계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태우와 이진영(2009)이 간행시기와 주제영역간의 상관성의 통계적 검정을 부분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주제영역의 설정방법은 크게 분석대상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빈도수를 중심으로 주제영역을 설정하는 귀납적 방법과 분석대상 논문이 아닌 기존 학자와 기관,

관련법을 종합하여 주제영역을 설정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제영역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학회지 논문들을 주제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록관리학 분야의 모든 주제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주제영역을 설정하는 작업과 선정된 주제영역에 해당 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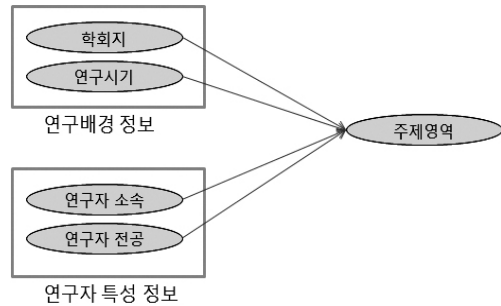
논문들을 할당하는 작업이 분리된다. 이 방법은 보다 정교한 주제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회지 논문을 선정된 주제영역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들은 주제영역을 포함한 분석항목의 분포적 특성과 분석항목간의 관련성을 기술통계적 방법(빈도와 비율)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과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의 분포와 주제영역과 다양한 연구정보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이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의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은 '연구배경 정보'와 '연구자특성 정보'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인은 '주제영역'로 구성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인 '연구배경 정보'는 '연구시기'와 '학회지'로 세분하였고 '연구자특성 정보'는 '연구자 소속', '연구자 전공'으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들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를 통해 특정 학문분야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형성하여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까지 수행된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학회지'는 해당 학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비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회지별로 특정화된 학문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학회지'에 따른 주된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기록관리학은 이론과 실무의 상호보완과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소속'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집단과 국가기록원 및 정부기관 등의 실무 집단간의 주된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넷째, 기록관리학은 학제적 성격을 가진 학

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전공'을 통해 어떤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학문분야에 따른 주된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연구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학회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3.2 분석내용과 방법

3.2.1 분석대상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3종의 전문 학회지로부터 374개의 연구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에서 서평, 발표문, 발간사, 문헌목록, 편집규정, 휘보 등은 제외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학회지 논문의 게재지와 게재시기 및 편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2004년도와 2006년도에 미발행된 학회지를 제외한 『기록관리보존』로부터 8년간의 학회지 논문 70편을 추출하였다. 『기록학연구』로부터 10년(2000년-2009년)간의 학회지 논문 169편을 추출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부터 9년(2001년-2009년)간의 학회지 논문 135편을 추출하였다.

<표 2> 분석대상 학회지 논문의 게재지와 게재시기 및 편수 현황

학회지	게재시기 및 편수 현황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기록관리보존	9	10	5	23	6	-	7	-	7	-	3	70
기록학연구	-	14	17	21	16	15	14	21	16	18	17	16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14	17	14	16	17	11	16	20	10	135
합계	9	24	36	61	36	31	38	32	39	38	30	374

3.2.2 분석내용

1) 독립변인

가. 연구배경 변인

연구배경 변인은 크게 학회지 변인과 연구시기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회지 변인은 범주형 변인으로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범주값으로 가지며 <표 3>과 같이 통계처리를 위해 각각 코드 값을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시기 변인 역시 범주형 변인으로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의 발행년도를 범주값으로 가지며 연구기사별 분석을 위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를 1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2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기, 2008년 이후는 4기로 구분하였고 <표 4>와 같이 통계처리를 위해 코드 값을 부여하였다.

<표 3> 학회지 변인

코드	범주값	빈도
1	기록관리보존	70
2	기록학연구	169
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5

<표 4> 연구시기 변인

코드	범주값	범주값	빈도
1	1기	1999	9
2		2000	24
3		2001	36
4	2기	2002	61
5		2003	36
6		2004	31
7	3기	2005	38
8		2006	32
9		2007	39
10	4기	2008	38
11		2009(9월)	30

나. 연구자특성 변인

연구자특성 변인은 크게 연구자의 소속 변인과 전공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특성 변인은 학회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하나 이상의 소속이 기재된 경우 먼저 언급된 정보를 사용하였고 다수의 저자가 있을 경우 제 1저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첫째, 연구자소속 변인은 분석대상인 374개의 연구논문으로부터 '국가기록원', '정부/행정기관', '대학 및 대학원', '도서관', '연구소(원)', '회사', '학회/협회/포럼/위원회', '기타'의 8가지가 추출되었다. 연구자소속 변인은 <표 5>와 같이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8개 기관명을 범주값으로 가지며 통계처리를 위해 각각 코드 값을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자전공 변인은 연구자 소속이 '대학 및 대학원'인 18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자 소속이 '대학 및 대학원'이 아닌 경우 학회지내에서 전공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자전공 변인의 범주값으로 374개의 연구논문으로부터 '기록관 및 기록관리', '문헌정보학', '사학', '예술/영상/사진', '컴퓨터 공학', '기타'의 6개 전공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기타' 영역에는 '경영학', '교육학', '법학', '인쇄공학', '중어중문학'이 포함되었다. 연구자전공 변인은 <표 6>과 같이 '기록관 및 기록관리'를 포함한 6개의 범주값과 통계처리를 위해 각각 코드 값을 부여하였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조사대상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이다. 조사대상 연구논문의 '주제영

〈표 5〉 연구자소속의 범주형 변인

코드	범주값	빈도	학술논문에 기재된 명칭(일부 사례)
1	국가기록원	38	정부기록보존소, 정부기록보존소 보존과,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정부기록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2	정부/행정 기관	42	경기도교육청 자료관, 한국수력원자력, 네덜란드 국립기록청, 중국 섬서성 당안국, 국회기록보존소, UN 난민고등판무관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등
3	대학 및 대학원	182	목포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신라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론토대학 정보대학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등
4	도서관	4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울영신고등학교 도서관, 체코 국립도서관
5	연구소(원)	57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연구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 대덕연구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6	회사	29	삼진교역상사 시스템사업본부, 동방시스템SI사업팀, 중앙정보테크, 시공테크, 성우디엠에스, 듀플렉스, 오름정보, 덤스, 유니다스 SI사업부 등
7	학회/협회 등	14	일본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기록관리학회, ICA 법제위원회,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8	기타	8	-
	합계	374	-

〈표 6〉 연구자전공 변인

코드	범주값	빈도	
1	기록관 및 기록관리	106	
2	문헌정보학	51	
3	사학	10	
4	예술/영상/사진학	5	
5	컴퓨터공학	4	
6	기타	경영학	1
		교육학	1
		법학	1
		인쇄공학	2
		중어중문학	1
	합 계	182	

역'은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3종으로부터 344개의 연구논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에 기반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

야의 핵심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록물, 기록물 관리, 정책/제도, 시스템, 체계/체제, 기관, 분류/목록/기술, 표준/표준화, 정보서비스, 아카이브즈/아카이빙, 장치/장비/용품, 기준/규정/규칙, 인력, 교육/교과과정, 법/

법령, 기록관리학, 평가, 기록매체, 모형, 메타데이터, 기술, 윤리, 기타」의 23개의 핵심 연구대상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핵심 주제영역을 23개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23개의 주제영역은 최근 10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주제영역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23개의 주제영역(2단계 주제영역)을 토대로 주제영역을 보다 적은 수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을 13개의 핵심 주제영역(3단계 주제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7>은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을 단계별로 군집화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7> 국내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

코드	3단계 주제영역	2단계 주제영역	1단계 주제영역	
1	기록물 및 기록매체	기록물	1) 기록물 일반 2) 종이/전자 기록물 3) 역사 기록물 4) 기관 기록물	5) 주제분야 기록물 6) 시대/지역 기록물 7) 기타
		기록매체	1) 마이크로필름 2) 종이 3) 뉴미디어	
2	기록관리학 및 교육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교육/교과과정	1) 기록관리학 일반교육/교과과정 2) 기록전문가 양성교육 3) (기록관 또는 기록관인력을 위한) 교육서비스/프로그램	
3	인력 및 윤리	인력	1) 아카비스트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윤리	2) 아카비스트 윤리	
4	아카이브즈 및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일반 2) 국가/지방/특수 기록(물) 관리 3) 기록물 라이프사이클 4) 기록관리업무 및 유형	5) 기록관리처리프로세스 6) 전자문서/기록관리전산화 7) 기록보존환경 8) 기록보존
		아카이브즈/아카이빙	1) (디지털) 아카이브즈 2) 디지털 아카이빙	3) 분야 아카이빙
5	모형 및 체계	모형	1) OAIS 참조모형 2) 기록관리모형	3) 이관절차모형 4) 진본평가시스템모형
		체계/체제	1) 기록(물)관리체계 2) 국가/국회기록(물) 관리체계	
6	법/정책/제도	법/법령	1) 기록(물)관리법 2)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및 시행령	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4) 기록보존법(령)
		정책/제도	1) 기록(물)관리제도 일반 2) 인력양성제도 3) 기록전문직렬제도	4) 평가제도 5) 기록관리정책 6) 기타

코드	3단계 주제영역	2단계 주제영역	1단계 주제영역	
7	기관	기관	1) 협회/협력체 2) 수장고 3) 기록보존소/기록관 3) 특정 기록보존소/기록관	- 국가/정부/중앙 - 지방 - 대통령 - 대학 - 기타
8	시스템/장비/ 기술	장치/장비/용품	1) 기록물처리 장치/장비 일반 2) 전자기록물 장치/장비	3) 기록물 보존장비
		기술	1) 탈산처리기술 2) 보존기술	3) 실무기술
		시스템	1) 기록(물)관리시스템 일반 2) 전자제어시스템 3) 통합검색시스템	4)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5) 기타 시스템
9	표준 및 기준	표준/표준화	1) 기록관리 분야 표준/표준화 2) 전자문서 표준화	3) 메타데이터 표준 4)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표준
		기준/규정/규칙	1) 기록(물) 관리 규정/기준 2) 공문서관리규정/규칙 3) 보존 및 관리 기준	4) 기록품질기준 5) 평가기준
10	조직화	분류/목록/기술	1) 기록(물) 분류체계 2) 기록(물) 분류체계	3) 문헌(서) 분류 4) 기록(물) 기술(description)
		메타데이터	1) 메타데이터 일반 2) 메타데이터 요소	
11	평가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론	
12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1) 열람/공개 2) 기록정보서비스	3) 서비스프로그램
13	기타	기타	1) 기타	

〈표 7〉과 같이 설정된 13개의 주제영역은 각각 통계처리를 위해 코드 값을 부여하였다. 조사대상 연구논문은 해당 논문제목에 대한 구문 및 의미구조에 기반으로 13개의 주제영역 중 하나의 주제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해당 연구논문이 복합주제를 가질 경우 연구내용과 연구자의 전공을 근거로 보다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제영역을 부여하였다.

3.2.3 분석방법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입력된 조사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이를 SPSS 1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범주형 변인들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응분석을 통해 범주형 변인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2차원 분할표(two-way contingency table)의 저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였다. 대응분석이란 분할표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동시에 나타내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 기법이다. 예

를 들어 주제영역 분포의 패턴이 비슷한 학회지와 비슷하지 않은 학회지를 분류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응분석은 분할표의 행(주제영역)과 열(학회지), 행과 행, 열과 열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대응분석에서는 비슷한 열의 구성이 되는 행끼리는 가깝게, 비슷한 행의 구성이 되는 열끼리는 가깝게 배치되어 관계가 강한 행과 열은 가까이 배치되도록 좌표의 수치를 산출한다. 즉 대응분석은 행과 열의 결합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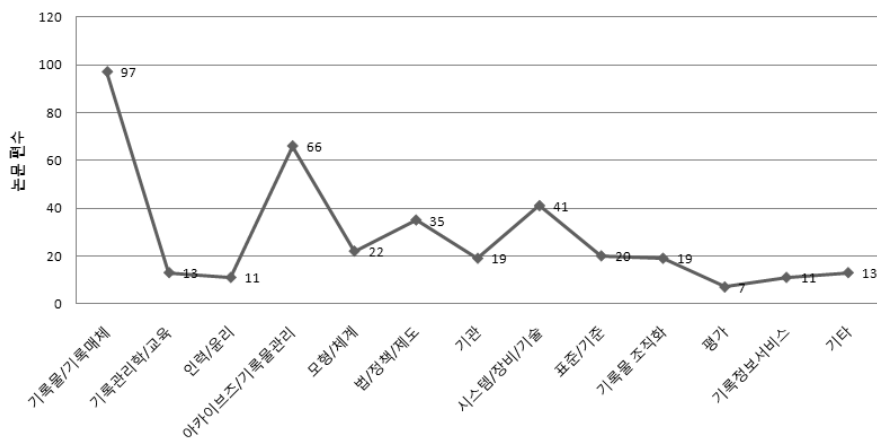
4.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4.1 주제영역별 분포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74개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들의 주제영역

별분포를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최근 10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에서 연구된 주제영역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은 주제영역별로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관리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영역은 '기록물/기록매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최근 10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주목한 주제영역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기록물/기록매체'가 26%,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8%, '시스템/장비/기술'이 11%, '법/정책/제도'가 9%, '모형/체계가 6%, '기관'과 '표준/기준'과 '기록물 조직화'가 각각 5%, '정보서비스'와 '인력/윤리'가 각각 3%, '평가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주제영역의 상위 55%이상을 차지하는 주제영역은 '기록물/기록매체'와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시스템/장비/기술' 주제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제영역별 분포

4.2 연구배경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

본 절에서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배경에 따른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배경과 주제영역간에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4.2.1 연구시기별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

1) 연구시기별 주제영역의 분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연구시기별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8>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시기를 년 단위뿐만 아니라 3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기로 구분하였으며 4기는 연구 수행상 2008년도와 2009

년도의 2년 단위로 구성하였다.

<표 8>에서 연구시기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13개 주제영역에 대해 1기에는 6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기에는 128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1기에 비해 86%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3기에는 10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논문생산량이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다. 2년 단위로 구성된 4기에는 68편으로 감소하였으나 4기의 경우 2010년의 연구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여 계산할 경우 3기와 비슷한 수준인 100편 정도의 연구논문 생산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2기(2002년-2004년) 이후로 평균 100편 이상의 안정적인 연구논문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년 단위로 보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는 2002년을 기점으로 연구논문의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그 이

<표 8> 조사대상 연구논문의 연구시기별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

구분	연구시기														
	1기				2기				3기				4기		
	'99	'00	'01	소계	'02	'03	'04	소계	'05	'06	'07	소계	'08	'09	소계
기록물/기록매체	1	6	5	12	25	7	8	40	14	9	9	32	9	4	13
기록관리학/교육	0	1	4	5	1	1	0	2	1	0	1	2	4	0	4
인력/윤리	0	1	1	2	2	2	1	5	0	1	1	2	2	0	2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0	4	10	14	11	7	4	22	9	3	1	13	6	11	17
모형/체계	0	0	2	2	0	3	1	4	1	3	4	8	5	3	8
법/정책/제도	1	3	1	5	3	3	8	14	1	4	5	10	4	2	6
기관	1	2	7	10	2	0	1	3	1	1	1	3	1	2	3
시스템/장비/기술	6	5	1	12	10	1	2	13	4	2	5	11	0	5	5
표준/기준	0	1	1	2	2	3	0	5	4	0	5	9	3	1	4
기록물 조직화	0	1	0	1	2	5	5	12	0	2	2	4	2	0	2
평가	0	0	0	0	0	0	0	0	2	3	0	5	1	1	2
기록정보서비스	0	0	1	1	0	1	0	1	0	3	5	8	0	1	1
기타	0	0	3	3	3	3	1	7	1	1	0	2	1	0	1
계(편)	9	24	36	69	61	36	31	128	38	32	39	109	38	30	68
%	18%				34%				30%				18%		

후로는 연간 30편이상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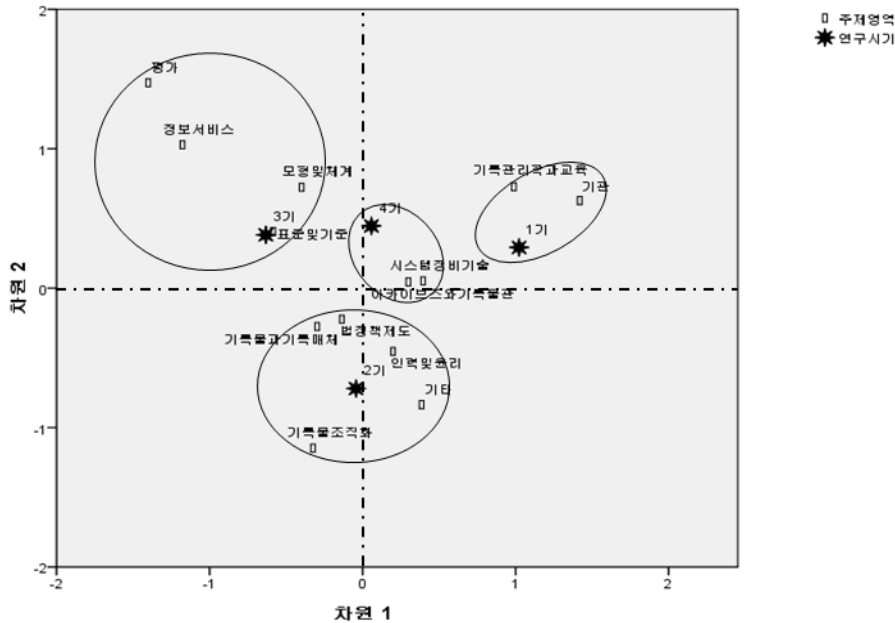
연구시기별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의 분포를 보면 먼저 ‘기록물/기록매체’,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법/정책/제도’, ‘기관’, ‘시스템/장비/기술’, ‘표준/기준’의 6개 주제영역이 1999년 이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록관리학/교육’, ‘인력/윤리’, ‘모형/체계’, ‘기록물 조직화’, ‘평가’, ‘기록정보서비스’ 등의 주제영역들은 특정 년도에서 연구공백을 보이는 등 비연속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최근 10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의 성장패턴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속 성장형 주제영역’, ‘전반기 약성장/후반기 감소형 주제영역’, ‘전반기 강성장/후반기 감소형 주제영역’,

‘후반기 양성장형 주제영역’, ‘후반기 강성장형 주제영역’, ‘산발적 성장형 주제영역’의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2) 연구시기와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

여기서는 연구시기와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연구시기 및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를 행과 열에 타점한 것이다. <그림 3>에 의하면 ‘시스템/장비/기술’,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기록물과 기록매체’, ‘법/정책/제도’의 4개의 주제영역은 <그림 3>에서 1차원 좌표와 2차원 좌표의 교차지점에 군집하고 있으며 각 연구시기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위치



<그림 3> 연구논문의 연구시기 및 주제영역의 대응분석 결과

함으로써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된 주제 영역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시기별 주제영역의 군집현황을 보면 1기(1999년-2001년)는 '기록관리학/교육', '기관'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고 2기(2002년-2004년)는 '기록물과 기록매체', '기록물조직화', '법/정책/제도', '인력 및 윤리'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다. 3기(2005년-2007년)는 '표준/기준', '모형/체계', '정보서비스', '평가'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고 4기(2008년-2009년)는 '시스템/장비/기술',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들은 일부 주제영역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특정 연구시기마다 집중적으로 연구된 주제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 1-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은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2 학회지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

1) 학회지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별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 9>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3종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핵심 학회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9>에서 학회지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13개 주제영역에 대해 [기록학연구]가 전체 45%로 가장 높은 논문 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36%, [기록관리보존]이 19%의 논문

<표 9> 학회지에 따른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

구 분	학회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소계	%	소계	%	소계	%
기록물/기록매체	17	24%	41	24%	39	28%
기록관리학/교육	0	0%	5	3%	8	6%
인력/윤리	1	1%	6	4%	4	3%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9	13%	37	22%	20	15%
모형/체계	2	3%	11	7%	9	7%
법/정책/제도	2	3%	19	10%	14	10%
기관	5	7%	10	6%	4	3%
시스템/장비/기술	27	39%	6	4%	8	6%
표준/기준	4	6%	9	5%	7	5%
기록물 조직화	1	1%	13	8%	5	4%
평가	0	0%	7	4%	0	0%
정보서비스	0	0%	3	2%	8	6%
기타	2	3%	2	1%	9	7%
소계	70	100%	169	100%	135	100%
%	19%		45%		36%	

생산성을 보였다. 3종의 학회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물들은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주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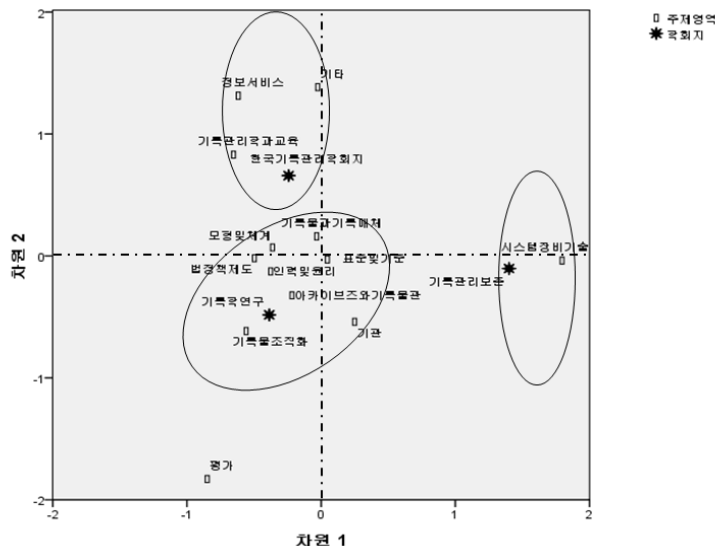
학회지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보면 먼저 [기록관리보존]은 '시스템/장비/기술'이 39%, '기록물/기록매체'가 24%,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3%, '기관'이 7%, '표준/기준'이 6%, '기관'이 5%, '모형/체계'와 '법/정책/제도'가 각각 2%, '기록물 조직화'와 '인력/윤리'가 각각 1%의 분포도를 보였으나 '기록관리학/교육', '평가', '정보서비스'의 주제영역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학연구]는 '기록물/기록매체'가 24%,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22%, '법/정책/제도'가 10%, '기록물 조직화'가 8%, '모형/체계'가 7%, '기관'이 6%, '표준/기준'이 5%, '인력/윤리'와 '시스템/장비/기술', '평가'가 각각 4%, '기록관리학/교육'이 3%, '정보서비스'가 2%의 분포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기록물/기록매체'가 28%,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5%, '법/정책/제도'가 10%, '모형/체계'가 7%, '기록관리학/교육'과 '시스템/장비/기술', '정보서비스'가 각각 6%, '표준/기준'이 5%, '기록물 조직화'가 4%, '인력/윤리'와 '기관'이 각각 3%의 분포도를 보였으나 '평가' 주제영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인 3종의 학회지들은 '기록물/기록매체' 주제영역의 연구논문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학회지별로 특징적인 주제영역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회지와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

여기서는 학회지와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논문의 학회지 및 주제영역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4〉는 조사대상 학회지와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를 행과 열에 타점한 것이다. 〈그림 4〉에 의하면 [기록관리보존]는 '시스템/장비/기술'의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다. [기록학연구]는 '기록물조직화', '기관',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표준및기준', '법/정책/제도', '인력및윤리', '기록물과 기록매체', '모형및체계', '평가'등의 다양한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기록관리학과교육', '정보서비스', '기타'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별로 특징적인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 1-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은 학회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 연구자특성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 및 차이

본 절에서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자 특성에 따른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특성과 주제영역간에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4.3.1 연구자 소속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와 차이

1) 연구자 소속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자 소속별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표 10〉

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정부/행정기관', '대학및대학원', '도서관', '연구원', '회사', '학회/협회', '기타'의 8개의 연구자 소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0〉에서 연구자 소속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13개 주제영역에 대해 [대학 및 대학원]이 전체 48%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연구소]가 15%, [국가기록원]과 [정부및행정기관]이 각각 11%, [회사]가 8%, [학회및협회]가 4%, [기타기관]이 2%, [도서관]이 1%의 생산성을 보였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성과물은 주로 [대학및대학원]에 소속된 연구자 집단에 의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소속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의 분포를 보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기록매체'가 18%,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5%, '시스템/장비/기술'이 13%, '법/정책/제도'가 10%, '정보서비스'가 9%, '기록물조직화'가 7%, '기관'이 7%의 분포도를 보였다. [정부및행정기관]은 '기록물/기록매체'가 41%, '모형/체계가 14%, '기록물조직화'가 13%,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0%, '법/정책/제도'가 7%, '시스템/장비/기술'이 7%의 분포도를 보였다. [대학/대학원]은 '기록물/기록매체'가 25%,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23%, '법/정책/제도'가 12%, '기록관리학/교육'이 6%, '기관'이 6%, '모형/체계가 5%, '시스템/장비/기술'이 5%, '표준/기준'이 4%의 분포도를 보였다. [연구소]는 '기록물/기록매체'가 30%,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4%, '표준/기준'이 12%, '시스템/장비/시설'이 11%, '기록물조직화'가 9%, '모형/체계'와 '법/정책/제도', '정보서비스'가

〈표 10〉 연구자 소속에 따른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

구 분	연구자 소속															
	국가 기록원		정부/ 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도서관		연구소		회사		학회/협회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기록물/기록매체	7	18	17	41	46	25	1	25	17	30	6	21	3	22	0	0
기록관리학/교육	1	3	0	0	10	6	0	0	1	2	0	0	0	0	1	12.5
인력/윤리	1	3	1	2	7	4	0	0	1	2	0	0	0	0	1	12.5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6	15	4	10	41	23	0	0	8	14	3	10	3	22	1	12.5
모형/체계	2	5	6	14	9	5	0	0	3	5	1	3	0	0	1	12.5
법/정책/제도	4	10	3	7	22	12	1	25	3	5	1	3	1	7	0	0
기관	3	7	1	2	10	6	0	0	0	0	2	8	2	14	1	12.5
시스템/장비/기술	5	13	3	7	9	5	0	0	6	11	15	52	2	14	1	12.5
표준/기준	2	5	1	2	7	4	2	50	7	12	0	0	0	0	1	12.5
기록물 조직화	3	7	5	13	5	3	0	0	5	9	0	0	0	0	1	12.5
평가	2	5	1	2	4	2	0	0	0	0	0	0	0	0	0	0
정보서비스	4	9	0	0	4	2	0	0	3	5	1	3	1	7	0	0
기타	0	0	0	0	6	3	0	0	3	5	0	0	2	14	0	0
계(편)	40	100	42	100	180	100	4	100	57	100	29	100	14	100	8	100
%	11%		11%		48%		1%		15%		8%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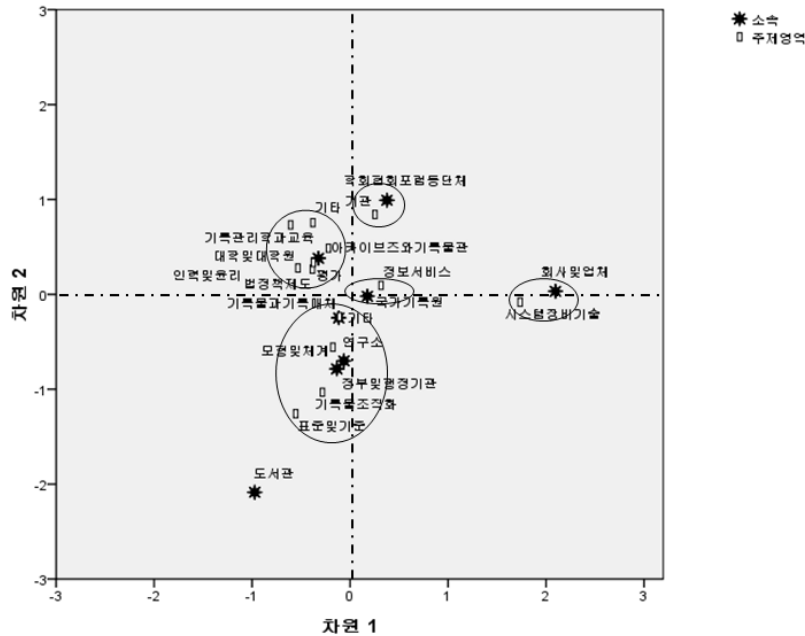
각각 5%의 분포도를 보였다 [회사]는 '시스템/장비/기술'이 52%, '기록물/기록매체'가 21%,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10%, '기관'이 8%의 분포도를 보였다. [학회및협회]는 '기록물/기록매체'와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각각 22%, '기관'과 '시스템/장비/기술'이 각각 14%, '정보서비스'가 7%의 분포도를 보였다.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학 관련 연구논문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표된 4건의 연구논문은 '기록물/기록매체', '법/정책/제도', '표준/기준'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소속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전체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록물/기록매체',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시스템/장비/기술' 주제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별로 주 관심 주제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자 소속과 주제영역의 상관관계

여기서는 연구자 소속과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조사대상 연구자 소속과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를 행과 열에 타점한 것이다. 〈그림 5〉에 의하면 [회사]는 '시스템/장비/기술'의 주제영역과 군집되어 있고 [학회및협회]는 '기관'과 군집되어 있다. [대학및대학원]은 다양한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기록관리학/교육',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평가', '법/정책/제도', '인력및윤리'의 주제영역과 군집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정보서비스'의 주제영역과 군집되어 있다. [연구소]와 [정부및행정기관]의 경우 '모



〈그림 5〉 연구논문의 연구자 소속 및 주제영역의 대응분석 결과

형/체계’, ‘기록물조직화’, ‘표준및기준’의 주제 영역과 군집되어 있다. 반면 [도서관]은 특정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자 소속별로 특징적인 주제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 2-1: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은 연구자 소속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2 연구자 전공유형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 및 차이

1) 연구자 전공유형에 따른 주제영역 분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자 전공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표 11〉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학과교육’, ‘문헌정

보학’, ‘사학’, ‘예술/영상/사진학’, ‘컴퓨터 공학’, ‘기타’의 6개의 연구자 전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1〉에서 연구자 전공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13개 주제영역에 대해 [기록물관리학과교육] 전공자들이 57%로 가장 높은 논문 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28%, [사학] 전공자가 6%, [예술/영상/사진학] 전공자가 3%,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4%, [기타] 전공자가 4%의 논문 생산성을 보였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성과물은 주로 [기록물관리학과교육]와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전공별 상위 60%이상을 차지하는 주제영역의 분포를 보면 [기록물관리학과교육]은 ‘기록물/기록매체’가 26%의 높은 분포도를

〈표 11〉 연구자 전공유형에 따른 주제영역의 생산성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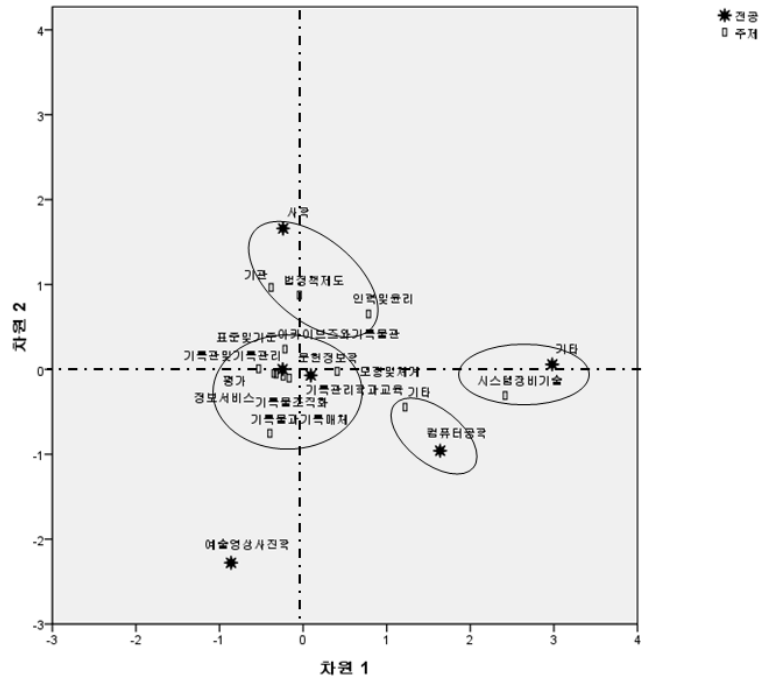
구분	연구자 전공유형												계(편)	%
	기록관및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사학		예술/영상/ 사진학		컴퓨터 공학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기록물/기록매체	27	26	12	24	1	9	5	100	1	25	0	0	46	26%
기록관리학/교육	5	5	5	10	0	0	0	0	0	0	0	0	10	6%
인력/윤리	2	2	3	6	1	9	0	0	0	0	1	14	7	4%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25	24	12	24	3	27	0	0	1	25	0	0	41	22%
모형/체계	6	6	2	4	0	0	0	0	0	0	1	14	9	5%
법/정책/제도	12	11	5	10	4	37	0	0	0	0	1	14	22	11%
기관	6	6	2	3	2	18	0	0	0	0	0	0	10	6%
시스템/장비/기술	3	3	2	3	0	0	0	0	1	25	3	44	9	5%
표준/기준	5	5	2	3	0	0	0	0	0	0	0	0	7	4%
기록물 조직화	3	3	2	3	0	0	0	0	0	0	0	0	5	3%
평가	4	4	0	0	0	0	0	0	0	0	0	0	4	2%
정보서비스	3	3	1	2	0	0	0	0	0	0	0	0	4	2%
기타	2	2	4	8	0	0	0	0	1	25	1	14	8	4%
계(편)	103	100	52	100	11	100	5	100	4	100	7	100	182	100
%	57%		28%		6%		3%		2%		4%		100%	

보였으며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24%, ‘법/정책/제도’가 11%의 분포도를 보였다. [문헌정보학]은 ‘기록물/기록매체’와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각 24%의 높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기록관리학/교육’과 ‘법/정책/제도’가 각 10%의 분포도를 보였다. [사학]은 ‘법/정책/제도’가 37%로 높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가 27%, ‘기관’이 18%의 분포도를 보였다. [예술/영상/사진학]은 ‘기록물/기록매체’ 주제영역(100%)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공학]은 ‘기록물/매체’,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시스템/장비/기술’ 주제영역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전공분야에서 ‘기록물/기록매체’,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법/정책/제도’ 주제영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전

공에 따라 주제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자 전공유형과 주제영역의 상관관계
 여기서는 연구자 전공과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은 조사대상 연구자 전공과 주제영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를 행과 열에 타점한 것이다. 〈그림 6〉에 의하면 [사학]는 ‘기관’, ‘법정책제도’, ‘인력및윤리’의 주제영역과 군집되어 있고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및기록관리]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주제영역들과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기록관리학



〈그림 6〉 연구논문의 연구자 전공 및 주제영역의 대응분석 결과

과및교육’, ‘아카이브스와기록물관리’, ‘표준및 기준’, ‘기록물과기록매체’, ‘정보서비스’, ‘모형 및체계’, ‘평가’, ‘기록물조직화’와 군집되어 있다. [컴퓨터공학]과 [예술/영상/사진학]을 포함한 다른 전공분야들은 특정 주제영역과 군집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공학, 예술/영상/사진학, 경영학, 법학 등 타 학문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논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특징적인 주제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자 소속과 주제영역 간에 상호 관련성을 기하학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및기록관리]의 두 전공 분야간에 주제영역에 차이가 없었으며 [사학]을 포함한 다른 전공분야에서도 특징적인 주제영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빈도

분석과 대응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 2-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영역은 연구자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이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의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회지 논문 37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회지 논문으로부터 연구배경 정보(연구시기와 학회지)와 연구자특성 정보

(소속 및 전공)를 추출하여 독립변인으로 삼았고 선정된 연구논문들의 주제영역을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주제영역의 분포도와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구시기마다 특정 주제영역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응분석 결과에 따르면 1기(1999년-2001년)는 '기록관리학/교육', '기관'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2기(2002년-2004년)는 '기록물조직화', '인력및윤리', '기록물/기록매체', '법/정책/제도'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3기(2005년-2007년)는 '표준및기준', '정보서비스', '평가'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4기(2008년-2009년)는 '시스템/장비/기술',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의 주제영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시스템/장비/기술',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기록물/기록매체', '법/정책/제도'의 주제영역은 최근 10년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 주제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회지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회지마다 특정 주제영역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대응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록관리보존]은 '시스템/장비/기술'의 주제영역, [기록학연구]는 '기록물조직화', '기관',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표준및기준', '법/정책/제도', '인력및윤리', '기록물과 기록매체', '모형및체계', '평가'의 주제영역,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기록관리학과교육', '정보서비스', '기타'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자 소속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구자의 소속기관마다 특정 주제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응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사]는 '시스템/장비/기술'의 주제영역, [학회및협회]는 '기관' 주제영역, [대학및대학원]은 '기록관리학/교육', '아카이브즈/기록물관리', '평가', '법/정책/제도', '인력및윤리'의 주제영역, [국가기록원]은 '정보서비스'의 주제영역, [연구소]와 [정부및행정기관]은 '모형/체계', '기록물조직화', '표준및기준'의 주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연구자 전공에 따른 주제영역의 분포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구자 전공과 주제영역간에 특징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은 최근 10년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제영역이 출현하고 쇠퇴하여 왔고 조사대상 학회지들은 특징적인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소속기관들은 특징적인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공 분야별로 특징적인 주제영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중 [가설 1-1], [가설 1-2], [가설 2-1]은 지지되었고 [가설 2-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흐름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의 인용문헌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2]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3]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4]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5]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6]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7]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0(1): 87-100.
- [8] Bearman, David, & Trant, Jennifer. 1997. "Electronic Records Research Working Meeting. May 28-30, 1997 : A Report from the Archives Community." *D-Lip Magazine*. [online]. [cited 2009. 7. 2]. <<http://www.dlib.org/dlib/july97/bearman.html>>.
- [9] Bichfod, Maynard. 1988. "Who Are the Archivists and What Do They Do." *American Archivist*, 51: 169-193.
- [10] Couture, Carol. 2001. "Education and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 General Tendencies." *Archival Science*, 1(2): 157-182.
- [11] Couture, Carol, & Ducharme, Daniel.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41-67.
- [12] Cox, Richrad, J. 1987.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 1901-1987." *American Archivist*, 50(1): 306-323.
- [13] Cox, Richrad, J. 1994. *The First Generation of Electronic Records Archivists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Professionalization*. New York: The Haworth Press.
- [14] Cox, Richrad, J. 2000. "Searching for Authority : Archivists and Electronic Records in the New World at the Fin-de-Science." *First Monday*, 5(1).
- [15] Gilliland-Swetland, Anne J. 1992. "Archivy and the Computer :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17(2): 95-112.

- [16] M. Nagao, J. Tsujii, K. Yada, & T. Kakimoto. 1982. "An English Japanese Machine Translation System of the Titles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Papers." J. Horecký. ed., *I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245-252. Prague: Academia Prah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yu-Hwan Kim, Bo-Seong Jang, Hyun-Jung Yi.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 [2] Hee-Jung Kim.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3] Hee-Jung Kim.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6(2): 5-25.
- [4] Tea-Woo Nam, & Jin-Young Lee.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5] Se-Hoon Oh. 2005. *(A)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cited literature*.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 [6] Jae-Yun Lee, Ju-Young Moon, & Hee-Jung Kim.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 [7] Ro-Sa Chang, & You-Seung Kim.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